

#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 Special Theme

- 당신의 2014년은 어떠했습니까?
- 연말결산 세아 10대 뉴스

## Special Issue

- 세아제강, 6억불 수출의 탑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November + December 2014



새로운 내일을 위해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  
자기성찰

# CONTENTS

November + December 2014 Vol.354



## Cover Story

2014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2015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우리가 지닌 뿔을 얼마나 제대로 갈고 닦았을까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번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길 바라며 이번 호의 주제는 '자기성찰'로 정해보았습니다. 한 해의 보람과 후회를 되짚어보는 시간 속에서 새로이 또 한 걸음 내디딜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면 코끝 시린 이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법 마음이 든든합니다.



## 내일을 키우는 SeAH

- 04 Theme Essay  
새로운 나를 향한 꿈틀거림 <꿈꾸는 애벌레 이야기>
- Theme Column
- 06 나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평가>
- 08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의 자기성찰
- 12 Theme Research  
당신의 2014년은 어떠했습니까?
- 14 Theme Special  
2014년 우리를 가슴 뛰게 한 소식  
연말결산 세아 10대 뉴스



## 세상을 움직이는 SeAH

- 세아는 지금
- 18 세아제강, 6억불 수출의 탑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제 51회 무역의 날 기념식
- 20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 22 글로벌 인재들의 주경야독  
2014 제 2차 SGC 프로그램 실시
- 24 백 투 더 세아  
통합사옥으로 오기까지 성장과 도약의 터전을 되돌아보다
- 26 글로벌 세아  
부드러움 속에 지닌 강한 경쟁력 <SeAH Steel Vina>
- 30 현장견문록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선입견을 버리고 해결책을 얻다  
<세아제강 군산강관공장 품질경영팀>
- 34 부서탐방기  
오늘의 자기대면이 내일의 지속성장이다  
<세아 FS 광주공장 생산팀>



## 마음이 통하는 SeAH

- 38 취미 삼매경  
영하의 추위마저 녹이는 따뜻한 나눔  
세아 ESAB 봉사동호회 <세아드림>
- 42 특별한 하루  
춧불 아래 깊어가는 성찰의 시간  
<소이 캔들(Soy Candle) 만들기>
- 46 리얼 리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연말 식탁  
<맛집> 시타라(Sitara)
- 47 Let's go 오페라 - Christmas Special  
세아의 따뜻한 연말 이야기
- 48 SeAH News | People News
- 50 Reader's Page



새로운 나를 향한 꿈틀거림

## 꿈꾸는 애벌레 이야기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나만 여기에 두고 저 혼자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연초의 계획과 비교하며 열패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을 새로이 발견한  
어느 애벌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Illustrator 박하영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어요.

오랜 잠에서 깨어나 허기를 느낀 애벌레는 잡아먹을 나뭇잎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던 중, 자신의 몸집보다 큰 짐을 들고 가는 개미와 마주쳤죠.

“안녕, 난 애벌레라고 해. 넌 누구니? 어쩌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

“난 개미야. 그리고 이걸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겨울을 든든히 나기 위한 소중한 양식이란다.”

개미는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애벌레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이번에는 무당벌레를 만났어요.

“난 무당벌레라고 해. 지금 꽃들을 해치는 진드기들을 물리치고 있어.”

그 다음에 만난 귀뚜라미는 숲 속에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애벌레는 숨털투성이에 울퉁불퉁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누추하게 느껴졌어요.

“내게도 무당벌레의 빨갛고 견고한 날개나 귀뚜라미의 훌륭한 연주 솜씨가 있다면 좋을 텐데...”

한숨을 내쉬며 길을 가던 애벌레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치를 발견했어요.

“저기서 뭐하고 있죠?” 그러자 고치 속에서 누군가 대답했어요.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단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는대요?”

“자신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한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저도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애벌레가 물었어요.

“고치 안에서 네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렴. 곧 너에게도 날개가 돋아날 거야.”

애벌레는 나무 위로 올라가 천천히 자신의 몸을 감싸는 고치를 만들었어요.

“정말 내 안에 나비가 있을까?” 깜깜한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조금 불안했지만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애벌레는 자신의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꿈틀거린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고치를 벗어 던지고 햇살 속으로 나온 애벌레는 더 이상 누추한 애벌레가 아니었어요.

나비가 된 애벌레는 찬란한 날개를 펼치며 멋지게 날아올랐답니다.

‘과연 내 안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을까?’ 어두운 고치 안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에 잠깁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내일의 새로운 나’로 거듭날 힘을 지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평가

한 해가 저무는 12월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까?  
화려한 송년회? 흥겨운 파티? 즐거운 마무리도 좋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연초에 가슴 두근거리며 세웠던  
계획에 대한 점검이 그것.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들이  
있지는 않은지 계획적인 반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을 수정할지 알 수 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2014년의 나를 성찰해 보자.

면밀한 평가에서 자기의 장단점을 찾아라  
계획과 실제로 달성한 것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 차이를 파악해야 반성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할지  
도 모른다. 그래서 새해를 계획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  
난 한 해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조용한 곳에 자리잡고  
연초 계획표, 업무 일지, 각종 보고서, 일기 등을 쪽 읽  
어 보라. 이렇게 하면 지난 1년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요 목표들을 평가해보라.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 것은 무엇이며 용두사미로 끝낸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꼭 했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새해 계획  
에 다시 넣을 것인지 결정하라. 셋째, 실수와 실패 목록  
을 작성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 자기계발을 통해 숨겨진 능력을 깨워라

자기계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보라. 지난 1년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연수회나 세미나에는 얼마나 참  
여했는가? 목적 있는 여행은 얼마나 했는가? 타성에 젖어 경험에만 의지한다면 자칫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 자기계발  
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연마하는 일이다. '나는 재능이 없  
다'고 한탄하거나 고민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  
지를 모르고 이를 계발하려 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재능은 계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는 이르다.  
나약해진 의지를 다시 고무시키고 잠들어 있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라.

##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연간 계획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지난 1년을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새해를 계획하는 데 좋은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  
하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반성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종이와 필기도구를 준비하라. 그리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5가지 카테고리로 내년에 할 일을 분류  
하라. ❶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❷ 계속하기는 하되 줄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❸ 늘려야 할 일은 무엇  
인가? ❹ 새로 계획하고 시행할 일은 무엇인가? ❺ 완전히 중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5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도전적  
이고 매력적인 새해 목표를 세워 보자. 점검과 반성과 평가를 통해 더 나은 2015년을 준비하자.

## 자신의 계획 실행지수를 확인해 보자

스스로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실현했는지 간단하게 점검하기 위해 다음의 테스트를 해보자. 올해 가장 중요하게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네 가지의 계획을 두고, 테스트를 통해 현재 자기의 계획 실행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는 일은 진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계획 실행지수 점검표                             | 자기계발          | 가족          | 직장          | 건강          |
|-----------------------------------------|---------------|-------------|-------------|-------------|
| 계획목표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 ex) 책 100권 읽기 |             |             | ex) 10kg 감량 |
| 계획한 목표의 내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는가?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 계획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자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 계획한 목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가?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 현재와 목표 상황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0 1 2 3 4 5 |
| 점수 합계                                   |               |             |             |             |

### 테스트 점수 활용법

- 올해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 중 자기계발, 가족, 직장, 건강 등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뽑아서 적는다. 계획의 목표를 간단하게 적는다. ex) 자기계발 - 책 100권 읽기
- 다섯 가지 점수 항목란에서는 0-5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절대로 그렇다' 혹은 '잘 안다'는 5점에 체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 혹은 '전혀 모른다'는 0점에 체크한다.
- 네 가지 계획 전체점수를 더해 총점을 내면 최고는 100점, 최저는 0점이 된다. 자기의 계획 실행지수는 네 가지 계획의 총합계 점수가 된다.
- 계획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체크한 다음 각 계획 별로 합계점수를 구한다.

#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의 자기성찰

단점을 파악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장점을 극대화한 주력사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도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기업들은 어떤 단점을 포착하고, 어떤 장점을 내세워 이를 극복하거나 극대화했는지 그 사례를 찾아보았다.



## 가족 같은 분위기와 협력으로 위기극복, GE(General Electric)

GE는 세계적인 미국의 종합가전 기업으로, 1892년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Edison General Electric)과 톰슨-휴스턴(Thomson-Houston) 회사가 합병하여 만든 회사다. GE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97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내 5위권의 초대형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관료주의, 방대해진 조직문화로 인해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었다. 1981년 45살의 젊은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그는 경영 혁신 프로그램인 '워크아웃(Work Out)'을 실시했으며 그 일환 중 하나로 '벽 없는 조직'을 추진했다. GE의 구성원들은 이에 따라 서로 협력했으며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했다. GE에서 30년을 보낸 제이 아일랜드 GE자산운용 대표는 당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핵심 구성원들의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핵심 구성원들 대부분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단기에 이득을 챙기고 떠나려는 사람이 없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조직적인 생산능력으로 위기 돌파, 폭스바겐(Volkswagen)

유럽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은 1980년대 점유율 확보를 중시하는 양(量)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1988년에는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일본차에 대비한 경쟁력의 열세로 생산기지를 철수하기에 이른다. 또한 경쟁력 악화가 장기화되며 1993년 결산 시 당기 순손실 20억 달러로 사상 최악의 경영년에 봉착한다. 이 위기를 극복한 폭스바겐의 전략은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었다. 폭스바겐은 골프프의 한 대당 조립시간을 골프프의 44시간에 비해 30시간으로 대폭 단축한다. 그리고 기존 풀모델 체인지의 경우 43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숙련공 중심의 팀 체제를 통해 26개월로 단축하는 등 R&D 리드타임을 축소하여 신제품의 적기 공급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3년 최악의 경영성과를 발표했던 폭스바겐은 1994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이듬해에는 매출 881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경영성과를 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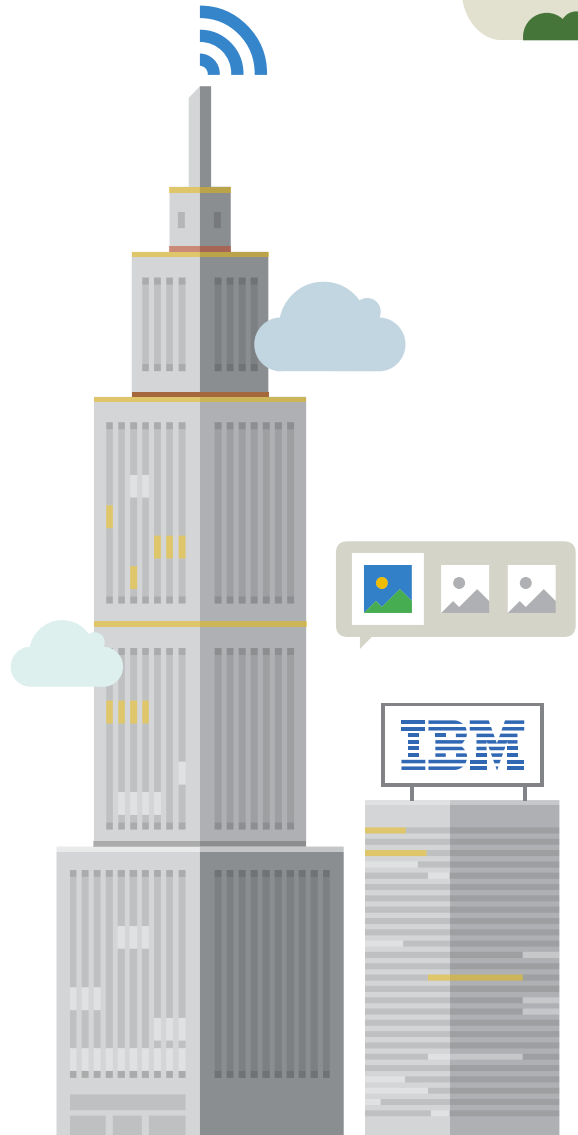
### R&D 역량에 기반한 혁신제품 개발, 듀폰(Dupont)

듀폰은 1802년 미국에서 화약 제조업체로 시작했다. 이후 최초의 합성섬유인 나일론을 개발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나, 1903년 큰 위기를 맞이한다. 서면 반독점법의 시행 이후 그간 화학산업에서 누리왔던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던 것이다. 듀폰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찾은 돌파구는 R&D였다. 같은 해,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듀폰은 오랜 시간 축적한 화학 R&D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제품을 내놓는다. 2004년 이후에는 과감하게 매출의 1/4을 차지하던 섬유사업을 매각하고 식량산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종자회사인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Pioneer Hi-Bred)를 인수한 것. 식량산업 개발에 주력한 이후 농업과 영양사업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 2011년에는 30%로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생명공학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적인 생명 공학 기업으로 변신했다.



### 보유기술에서 찾은 수익창출의 해답, IBM

1980년까지 IT시장의 최강자였던 IBM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대형 컴퓨터에서 PC로 변화하던 IT시장의 트렌드에 휘청한 것. IBM은 1992년말까지 3만 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 이를 조기에 상품화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1993년 새로 CEO가 된 루이스 거스너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을 이루었다. IBM은 메인 컴퓨터 생산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컨설팅, 프로젝트 사업 등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으로 주력사업을 전환했다. 또한 보유기술의 전략적 제휴와 판매 등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했다. 핵심 보유기술을 애플, 히다치, 유니시스 등 경쟁 기업체에 적극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며 모토로라, 지멘스, 도시바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특히 도시바와 제휴를 통해 공동개발한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씽크패드(Think PAD) 노트북 PC라는 히트상품을 개발했고, CD-ROM 드라이브 내장 등 경쟁업체와는 차별된 기능을 부가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과 디자인 혁신, 필립스(PHILIPS)

조명기기 제조업체로 출발한 필립스는 최초의 컬러 TV, 스테레오 TV, 스마트 카드 등을 개발했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결국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일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에는 27억 달러라는 사상 유래 없는 적자와 함께 크라프트(Kraft) 사장이 임기 중 사임하기에 이른다. 벼랑 끝에 놓인 필립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당장 이익을 내고 있더라도 장래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을 위한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새로 취임한 얀 팀머(Jan Timmer) 사장은 고객만족과 인적자원 중심을 주요 골격으로 한 필립스 웨이(Philips Way)를 공표하여, 회사의 주체가 고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고객의 날',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디자인 향상을 위한 외부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하여 가전소품에서 혁신적 디자인의 제품을 발매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3년 만에 부채는 절반으로 줄었고 필립스의 주가는 2배 가량 뛰었다.



### 프랑스 장인정신과 미국식 효율경영의 조화, 미쉐린(Michelin)

1889년 프랑스의 지방기업에서 출발해 세계 타이어 제조업체 1,2위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미쉐린도 1990년대 초반 큰 위기를 겪는다.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1990년 미국 타이어 제조사 유니로열 굿리치(Uniroyal Goodrich)를 인수했으나 유니로열의 부채와 때마침 불어닥친 세계경제 침체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 1993년 말, 미쉐린의 총 부채는 350억 프랑에 육박했다. 미쉐린은 자존심 높은 프랑스 기업의 장인정신으로 이를 극복한다. 업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비를 투자하고 숙련공의 장기근속을 독려한 결과, 15년이라는 오랜 개발과정을 거친 친환경 제품 '그린 타이어'가 탄생했으며 이 제품의 성공으로 미쉐린은 대형 M&A 후유증으로 인한 부도 위기에서 탈출하게 된다. 한편, 미쉐린은 미쉐린맨으로 불리는 비벤덤(Bibendum)을 타이어 업계 최초로 브랜드 마스코트로 도입하고 레스토랑 안내서 '미슐랭 가이드'를 출간하는 등 단순히 타이어만이 아닌 자동차 문화를 확대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고 브랜드력을 높여나갔다.

•참고 도서 <주요기업의 위기극복 성공사례> | FKI미디어 |





# 당신의 2014년은 어떠했습니까?

조사기간 : 2014년 11월 24일~12월 3일(10일간)  
응답자수 : 총 160명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풀어지게 마련이다. 한 해가 끝나가는 마당이니 도달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 어느 만큼 포기하고 자신을 용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야말로 긴장 속에서 보낸다. 그들에게 연말이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다. 세아인들에게 2014년은 어떤 의미였을까? 연말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새해는 어떻게 맞이하고 싶어할까? 세아가족에서 송년호를 맞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세아가 보여준 '추종불허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0%

1위  
같은 비전과 목표를 향한  
구성원 모두의 애사심

- 2위 제품 품질 및 기술력 \_ 22.5%
- 3위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영역 확장 \_ 21.5%
- 4위 변화를 선도하는 과감한 실천력 \_ 15%
- 5위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_ 5%
- 6위 계열사 간의 효율적인 업무 공조 \_ 3%
- 기타 \_ 3%



2014년 한 해 본인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48.5%

1위  
61~80점

- 2위 81~100점 \_ 39%
- 3위 41~60점 \_ 11%
- 4위 21~40점 \_ 1%
- 5위 0~20점 \_ 0.5%



2014년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49%

1위  
만족한다

- 2위 보통 \_ 28%
- 3위 매우 만족한다 \_ 12.5%
- 4위 만족스럽지 않다 \_ 9%
- 5위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_ 1.5%



2014년 한 해 개인 목표 달성은 얼마나 이루었나요?

31%

1위  
81~90%

- 2위 71~80% \_ 30.5%
- 3위 60~70% \_ 18.5%
- 4위 91~100% \_ 10%
- 60% 이하 \_ 10%



2014년 한 해 가장 충실했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51%

1위  
세아 구성원으로서의 나

- 2위 자아로서의 나 \_ 18%
- 3위 부모로서의 나 \_ 16%
- 4위 배우자로서의 나 \_ 10%
- 5위 기타 \_ 3%
- 6위 자녀로서의 나 \_ 1%
- 친구로서의 나 \_ 1%



2014년의 마지막날은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59%

1위  
가족과 함께 집에서

- 2위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여행 \_ 28%
- 3위 친한 이들과 송년 이벤트 \_ 5.5%
- 4위 교회나 성당, 절에서 경건하게 \_ 5%
- 5위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_ 1.5%
- 6위 기타 \_ 1%



새해에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7%

1위  
어학, 자격증 등  
객관적 스펙 넓히기

- 2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행 \_ 23%
- 3위 각종 스포츠 등을 통한 건강관리 \_ 21%
- 4위 독서, 명상 등 세상을 보는 지혜 키우기 \_ 13%
- 5위 결혼, 자녀 출산 등 사회적 관계 확장 \_ 10%
- 6위 다이어트 등 외모 경쟁력 \_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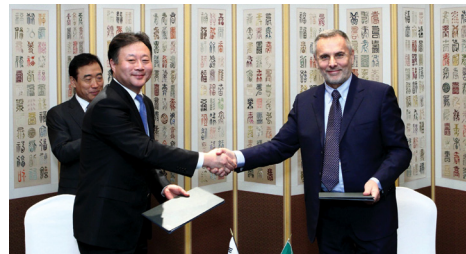
2014년 우리를  
가슴 뛰게 한 소식

## 연말결산 세아 10대 뉴스

숨가쁘게 달려온 2014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옵니다. 올해는 모든 세아인들의 노  
력이 값진 결과로 돌아와 더욱 뜻깊은 한 해였습니  
다.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기분 좋은 뉴스를 간추  
려 보았습니다.

### 1 세아제강, 이탈리아 강관업체 '이녹스텍' 인수

2월 10일, 세아제강은 이탈리아 특수강관 선두업체 이녹스텍(Inox Tech S.p.A)의 지분을 전량 매수하고 인수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녹스텍 인수를 통해, 세아제강은 글로벌 소수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신기술 제품영역인 '클래드 강관' 시장 진입에 발을 내딛었으며 이녹스텍의 이탈리아 및 중국 공장도 함께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였다. 현재 세아제강은 이녹스텍과 생산제품 및 공통시장에 대한 조율, 순천공장과의 시너지 창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 세아-포스코, 포스코특수강 주식매매 계약 체결

지난 12월 4일, 세아베스틸-포스코 간 포스코특수강 주식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번 인수 계약은 국내 특수강 부문의 리더십 강화와 스테인리스 분야로의 신규 진출을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통해 세아베스틸은 기존 탄소, 합금강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구강, STS 선재, 봉강 및 무계목 강관까지 확대하여 특수강 사업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간 400만 톤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강 메이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세아특수강, 중국 천진에 '포스세아선재' 공장 준공

10월 22일, 세아특수강은 포스코차이나와 합작으로 중국 천진에 착공한 '포스세아선재(천진)유한공사'의 준공식을 가졌다. 연간 약 3만 톤의 CHQ와이어 생산능력을 갖춘 천진공장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세아특수강은 3만 3000㎡ 규모 부지에 총 967만 달러를 투자해, 착공 약 1년만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천진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중국 내 고급 선재제품 판매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세아특수강은 중국 자동차산업 중장기 성장으로 인한 화북지역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예정이다.



### 4 세아 FS 신사명 및 2020년 비전 선포

한국번디는 올해 5월 15일 사명을 '세아 FS'로 변경하고 '플루이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 솔루션 기업(Global Leading Solution Provider for Fluid Systems)'을 향한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새로운 사명인 '세아 FS'는 기존의 '스틸튜브 소재 공급'에서 '고부가가치의 모듈·시스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전략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세아 FS는 이날 행사에서 '질적 일류화, 2020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1,2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 'FS 123'을 선포하였다.



# 5 세아제강, 6억불 수출의 탑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세아제강이 12월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수상의 의미가 값진 이유는 철강산업의 국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6억 692만불(US\$)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강관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아제강 수출1팀 소속 박창민 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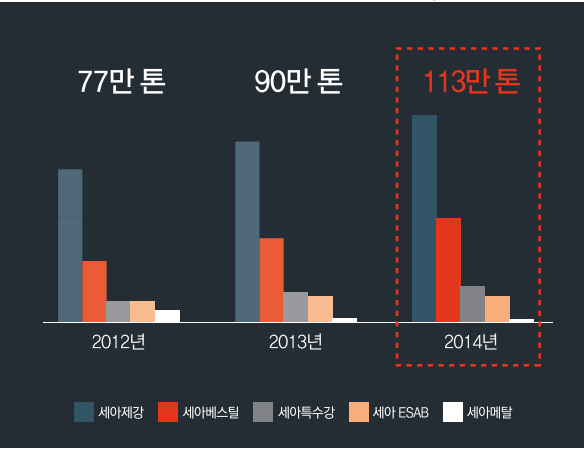
# 7 세아그룹, 국내 법인 수출 100만톤 달성

국내 계열사(철강 제조 5개사-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 ESAB, 세아메탈)의 철강 수출량이 113만 톤으로 사상 최초로 100만 톤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3.5만 톤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 6 세아그룹 6개사 '2014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KISNON)' 참가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 FS, 세아 ESAB, 세아 M&S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KISNON)'에 참가하였다. KISNON은 2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금속소재 종합전시회로, 전시업체 중 세 번째 규모로 참가한 세아그룹은 'inspired by SeAH'를 메인 콘셉트로 세아의 글로벌 경쟁력과 장인정신, 핵심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세아는 부스 중앙에 LED 패널로 이루어진 미디어타워를 세우는 등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부스 설계 및 홍보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 8 환경친화 선도기업으로서의 면모 부각

세아 FS 광주공장이 9월 12일 '2014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은 폐기물 감량으로 비용절감과 환경보존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에 수여되는 상으로, 세아 FS는 공정개선을 통해 폐수처리 오니 48%(326톤, 비용 29,000천 원) 감량 및 폐유 발생량 50% 감량 등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세아네트웍스는 2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3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신규 가동하여 연간 5,155MW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국 97기의 발전소에서 연간 총 13,557MW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는 온실가스 5,500톤 이상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 10 이운형문화재단, 오페라 인재 육성 및 장학 후원 본격화

故 이운형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해 설립된 '이운형문화재단'이 우수 오페라 인재 지원 및 장학 후원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운형문화재단은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우수 음악대학의 장학 후원 및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등을 전개 중이며, 향후 대한민국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9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즐거운 일터 조성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문화여가 친화기업'에 철강업계 최초로 세아제강이 선정되었다. 세아제강은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에 대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시행, 여가지원제도 제정 및 시설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아 ESAB도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아베스틸 사내야구단 '전북 세아베스틸'은 8월 24일 열린 '제1회 KBO 총재배 시도대항 직장인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초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각 시도 야구연합회에서 추천한 16개팀이 출전한 본대회 결승전에서 세아베스틸은 19-8로 대승하며 저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박의숙 회장이 직접 강연하는 <Let's go 오페라>가 서울 세아타워 뿐 아니라, 군산까지 확대되어 연중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오페라를 쉽게 배워보고 감상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세아제강, 6억불 수출의 탑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

## 제 5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 침체와 엔저 등 험난한 수출여건 속에서 사상 최대 무역규모와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이다. 세아제강은 이날 행사에서 6억불 수출의 탑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동시 수상했다.



### 올해 사상 최대 규모 무역 1조 달러 기록

역대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의 무역 규모 기록을 기념하며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부 및 무역업계 관계자 1,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시상식이 더 주목 받는 이유는 유럽과 중국 수출 시장의 경기 부진과 엔저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지난달 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역대 최단기간으로 달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전체 무역 규모는 약 1조 1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도 각각 5천 750억 달러, 450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의 날 회차사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무역 참여도를 높이며, B2C 등 온라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새로운 수출 마케팅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양자간 FTA에 더하여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 TPP 등 다자간 FTA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출의 탑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재확인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수출의 근간인 제조업을 IT와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산업부문의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혁파와 신산업 기술 개발, 제조업 창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도 함께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유공자와 수출의 탑을 직접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4명의 무역진흥 유공자가 총 822명(무역협회표창 포함)의 유공자를 대표해 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4개 업체 대표도 1,481개의 수출 기업을 대표하여 수출의 탑을 수여 받았다. 세아제강은 철강산업의 국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6억 692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이날 ‘6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1981년 강관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영업활동을 추진해온 세아제강은 이날 수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 ‘함께’의 힘으로 더 큰 성과 이룰 것

회사를 대표해 수상한 이휘령 대표는 “자랑스럽다. 세아의 핵심가치 ‘정직, 열정, 실력’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준 임직원들과, 세아제강을 믿어준 고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강관 산업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항상 우리는 잘 극복해 왔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세아제강 수출1팀의 박창민 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박 차장은 세아제강의 주력 판매제품인 OCTG와 Line Pipe 판매를 담당하며 국내외 원재료 메이커들과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 및 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통해 한국 강관시장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차장은 “큰 상을 받았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함께 나아간다면 2015년에도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을 품에 안게 되었다.

세계 특수강 시장의 최강자로 우뚝 선 세아베스틸의 역사적인 순간을 세아가족이 소개한다.

###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을 품에 안다

12월 4일 세아베스틸과 포스코의 포스코특수강 주식 매매 계약(SPA)이 성사됐다.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수입재의 증가로 업계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아와 포스코는 업계 차원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특수강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여 이번 인수협상을 성사시키게 됐다. 세아와 포스코는 미래 기업가치를 더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세아그룹 쪽으로 업종을 전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8월 포스코특수강의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포스코특수강 공장은 66만 여㎡의 규모에 연간 120만 톤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3년에는 저원가형 정밀 플라스틱 금형강을 비롯하여 해양플랜트용 Super 오스테나이트계 강관 및 고합금강 연주기술 등을 개발하기도 했다.

### 400만 톤 규모, 세계 최대 수준의 특수강 생산능력 갖게 돼

이번 인수계약 체결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연간 3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세아베스틸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스테인리스와 특수강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며 총 400만 톤 규모의 특수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인수계약 체결로 세아베스틸은  
연간 총 400만 톤 규모의 특수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세계 최대 특수강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세아베스틸은 세계 최대 특수강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영역도 다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세아베스틸은 기존에 탄소, 합금봉강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구강, STS 선재, 봉강 및 무게목강관(이음매가 없는 강관 · Seamless Steel Pipe)까지 확대해 특수강 사업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특수강 전문 철강사로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보다 다양한 고객층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도 기대

인수로 인한 사업적 시너지도 기대된다. 양사 간 공정 연계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세아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용 무게목 강관사업의 확대도 가능해진다. 또한 다양한 특수강 제품군의 일괄 공급을 통해 고객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사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 철강산업의 효율화를 통한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아그룹이 특수강 부문에서 국내 1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번 인수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상생경영,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를 넘어선 세계적인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세아베스틸의 활약이 기대된다.





# 글로벌 인재들의 주경야독

## 2014 제 2차 SGC 프로그램 실시

한파에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배움의 열정으로 녹이는 사람들.  
미래의 글로벌 인재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세아타워 4층에 모였다.  
바로, 2014년 새롭게 단장한 제 2차 SeAH Global  
Communication(이하 SGC)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 심층적,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진화

2015년 5월까지 실시하는 제 2차 SGC를 위해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 세아 FS, 세아 R&I에서 15명의 멤버가 선발되었다. 이들 중 10명은 10월 27일부터 영어 수업을, 나머지 5명은 11월 24일부터 중국어 수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제 2차 SGC 프로그램은 지난해 보다 더욱 짜임새 있는 스케줄로 세아인들을 글로벌 강자로 연단한다. 2013년에는 없던 중국어 수업이 새롭게 신설됐다.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에는 비즈니스 회화 위주로 개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주 2회에 걸쳐 비즈니스 표현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Intensive 과정(집중반)을 통한 심층적인 회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차별화를 둔 부분은 Intensive 과정으로 프리젠테이션, 협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적응 등에 대한 스킬과 방법론을 학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황 별 실전 회화를 통해 '듣고 그만일 수 있는 부분'을 '내 것으로 흡수할 기회'가 더 많아져 실용적인 수업으로 변모했다. 총 120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제 2차 SGC는 이번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5월 이후, 하루 동안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 중국어 수업도 처음으로 개설

한편, 이번에 처음 개설한 중국어 수업은 기초학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동시에는 중국어 회화의 근간이 되는 4성 연습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수업을 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3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회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의 경우 아직까지는 회화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과 3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 동안 충분히 말하고 듣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서 중국어에 대한 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 학원수강보다 만족도 및 효과 높아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신주영 대리는 "SGC 프로그램의 경우 세아만의 맞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강습과는 차별화되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작년에 처음 실시된 제 1차 SGC 프로그램 종료 후 수업을 들었던 대다수의 멤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없던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방식, 시간, 장소가 일반 학원보다 뛰어나서 만족했다."는 평이었다. 해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SGC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통합사옥으로 오기까지 성장과 도약의 터전을 되돌아보다

부산의 작은 공업소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흐름과 그룹의 발전상에 따라 세아는 새로운 터전을 다져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세아의 계열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 온 세아의 터전들을 돌아본다.

1960

### 한국 강관산업의 요람, 부산공장의 설립

1960년 10월, 부산철관공업은 부산시 중구 대교동 1가의 해덕철강상사 건물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월,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65번지의 정미소를 조관공장으로 개조하고 아세틸렌가스 용접 방식의 중고 조관기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부산공장을 세웠다.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한 부산철관 공업은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고, 곧 이곳에서 생산된 강관은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관기의 도입과 공장 확장이 시급했다. 이에 부산철관공업은 1962년 옛 부산문화방송의 송신소 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증축하고, 4월에 산소 및 카바이드 공장을 신설하였다.

1965

### 서울사무소의 설립과 해덕빌딩의 신축

부산철관공업은 사세의 성장과 함께 수출입 물량이 늘면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서울에서의 대관(對官) 업무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1962년 5월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30번지 진빌딩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강관의 입출고 및 판매를 비롯하여 수입업무와 관철업무 등 서울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본사의 축소판과 같았다. 한편, 해암은 1965년 10월 해덕(구 해덕철강상사)과 부산철관공업의 서울지역 영업 및 수출입 업무의 본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로구 관철동 19번지의 해덕빌딩(7층)을 신축하였다. 해덕빌딩 준공으로 을지로에 있던 부산철관공업의 서울사무소도 이전해움에 따라 해덕빌딩은 부산철관공업의 중앙 진출을 위한 근거지로서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1971

### 부산 창업시대를 마감하고 서울로

해를 거듭하며 수출이 늘어났다. 부산공장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설비를 증설하였으나, 여전히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진출이 새로운 명제로 부상하였다. 제2의 공장 건설이 절실해진 부산철관공업은 서울 근교에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제철의 대지 1만 9,000평을 매입하여 서울공장을 건설하였다. 서울공장 건설은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량이 부산공장을 능가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사의 서울 이전이 부각된 것이다. 부산철관공업은 서울공장 준공과 함께 공장 안에 2층짜리 사무동을 신축하여 1971년 8월 1일 본사를 이전하였다.

1985

###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용산 사옥 준공

본사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수출입 업무, 대관(對官) 업무 등 본사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는 관철동 서울사무소가 관장하였다. 개봉동 본사는 생산, 관리,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었다. 그러던 차에 용산역 앞에 창업주 해암이 1960년대부터 창고로 사용해온 2층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기되었다. 부산파 이끄는 창고 건물을 헐고 이 자리에 지상 5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였다. 1985년 1월 21일 사옥 준공과 함께 서울사무소가 신사옥으로 이전하였으며, 시차를 두어 개봉동 본사의 각 부서도 옮겨왔다.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본사 업무도 통합하여 업무의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2000

### 세아홀딩스 탄생과 남대문 사옥 이전

21세기의 출발과 함께 세아홀딩스가 출범했다. 세아제강은 창립 40주년인 2000년 10월 8일 서울시 중구 봉래동 소재의 우리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였다. 이는 용산사옥으로 본사를 옮긴 이래 15년만의 일이며, 창업 이후로는 부산시 중구 대교동 1가(해덕철강상사 사옥) → 부산시 남구 감만동(부산공장)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서울공장)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용산 사옥)에 이어 다섯 번째 본사 이전이다. 서울의 중심부인 시청에서 남대문, 서울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봉래동 1가 10번지에 위치한 신사옥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설계되었다.

2012

### 52년만의 통합사옥 세아타워

2010년에 들어서며 세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공간 확대와 계열사 간 협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 시내 4개 빌딩과 전국 지방 사업장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의 주요 기능 부서의 집결을 추진했다. 2012년 12월, 세아는 창립 52년만에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통합사옥을 마련하고 세아그룹 계열사 11개사를 한 곳에 모았다. 지하 7층~지상 32층으로 구성된 통합사옥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자유로 진입이 용이해 도심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계열사 간의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 및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잡았다.





부드러움 속에 지닌 강한 경쟁력

## SeAH Steel Vina

SeAH Steel Vina(SSV)는 1995년 강관의 불모지였던 베트남에 진출, 1998년부터 본격적인 강관공장 가동을 시작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 기업 중 최고의 생산과 판매를 올리며 동남아 최고의 ERW 강관 전문업체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SSV. 그 곳에서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글 : SSV B.O.D 류형

### 동남아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1995년 8월,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에서 동북쪽으로 40km정도 떨어진 동나이 성 비엔호아II 산업단지 내에 세아제강과 대우, 베트남 수도공사 와세코(WASECO)가 3사 합작으로 베트남 법인 Saigon Steel Pipe(SSP)를 설립하였습니다. 베트남 내수시장은 물론 동남아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힘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SSP의 사업화 과정은 험난한 행로의 연속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대우가 빠지게 되면서 2004년 12월 세아제강과 와세코가 SSP를 공동 운영하게 됐는데, 사회주의 색채가 짙게 남은 와세코와는 자유시장 경쟁에 대한 입장과 미래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달랐고,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9년 5월 일부 가동을 시작하여 2000년 들어 연 7만 톤 생산능력의 강관공장 가동이 본격화되었지만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원재료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세아제강은 2005년 12월 와세코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2006년 10월 SeAH Steel Vina(SSV)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 글로벌 기업실현의 초석을 다지다

글로벌 강관회사를 향한 수출 정책을 추구하던 SSV는 본격적인 API 강관 시장을 개척하고자 8인치 API 라인에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3월, 8인치 조관공장을 새롭게 준공하며 SSV는 약 10만 톤의 연간 생산능력을 가진 공장으로서의 값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통한 2010년 API 강관 공식 품질인증 라이선스 취득을 시작으로, 대망의 미주향 API OCTG Casing 강관의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UL/FM 모노그램 취득과 2011년 DNV 인증을 발판으로 보다 다양한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으며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더 큰 가능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베트남 내에서도 외국인 유망기업으로 인정받아 'TOP 40 FDI Award'를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4인치 OCTG Tubing Mill을 준공하였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9월에는 JIS 품질 인증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영업활동에 경쟁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SSV는 ERW 조관 및 도금공장을 포함한 5개의 단위공장에서 연 24만 톤의 강관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eAH Steel  
Vina





### API 시장으로의 도전 그리고 역경

SSV는 설비와 품질, 그리고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전문적인 강관 제조 교육에 힘쓰며 미주향 API 강관 수출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OCTG 유정용 강관 사업은 안정적인 설비 가동과 품질 확보로 2010년 첫 해 6천 5백 톤에서, 2012년 5만 톤에 이어 2013년에는 9월까지 4만 2천 톤을 판매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OCTG Tubing 라인 준공과 함께 2014년 7월까지 1만 8천 톤을 생산, 판매하며 신바람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동종업계 관련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한 OCTG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제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SSV는 2013년 10월부터 감산 작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중국 강관사 두 곳은 미국 상무성의 발표와 동시에 제소 포기 및 그들의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최종 판정까지 SSV는 수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대응했으나, 일방적이고 부당한 판정에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비상대책을 가동하다

2014년 7월 이후 API OCTG의 수출 물량은 급감하였지만, SSV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A/D 최종 판정과 ITC 공식 결과 발표 이후 미리 세워두었던 시나리오별 대응책에 따라, SSA(SeAH Steel America) 및 SPS(State Pipe & Supply) 등 관계사와의 업무협조, 적극적인 홍보 및 수주활동을 통해 미국, 캐나다 향 스탠다드 제품을 비롯해 API 송유관과 신제품의 판매를 확대하였고, 대내·외 품질 및 영업 경쟁력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Band Saw 자동 장치 도입 및 품질관리 과정 일원화를 통해 후처리 지연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였고, 품질향상 및 수요가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 12월 준공한 OCTG Tubing 라인의 추가 보완 작업으로 조관속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10월, 컨테이너 작업부문에서 월 7,680톤 생산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는 ERW 부문 베트남 최초의 JIS Mono를 취득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ERW 강관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자생력과 경쟁력을 겸비하다

SSV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개선, 본사 임직원의 기술지원과 현지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2013년말 기준 24만 톤 생산과 매출액 1.06억 달러를 달성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2014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문제, 원자재 가격 하락, 원유가격 하락 등 내년도 전망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SSV 임직원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국내·외 수요자와의 Long Term 전략과 수요처 다변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각종 라이선스 인증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내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및 효율화, 그리고 전 직원의 '멀티 플레이어'화를 통해 보다 큰 가능성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SV는 2012년부터 동나이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졸업까지 꾸준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SSV 모든 임직원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오늘도 값진 땀을 흘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자생력과 경쟁력을 겸비한 동남아 최고의 ERW 전문 강관 메이커로 자립매김 하고자 합니다.

### 베트남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토크

베트남의 설날은 우리와 비슷해요

'테트' 또는 '땃(Tet)'으로 불리는 베트남의 구정이 다가오면 베트남 사람들은 한달 전부터 집안을 보수하거나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1년을 벌여 구정에 빛을 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구정을 최대의 명절이라 생각하는데요. 음력 1월 1일이 되면 정오에 조상에게 제를 올리고 어른들은 소액의 돈을 넣은 빨간 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등 우리나라의 설날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들은 처음 본다"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가장 보편적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지요. '쌌음'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도 있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무법자들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니 베트남에서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갈 때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쌀국수

베트남에는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쌀국수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Pho(포)로 잘 알려진 베트남 전통 쌀국수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종류가 있고,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도 쌀국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분-까'는 튀긴 민물고기와 두부 등을 넣어 만든 쌀국수로 야채를 함께 넣어 먹습니다. '분-옥'은 우렁이 첨가된 국수로, 국물에 적당히 들어 있는 (한국보다는 제법 큰) 우렁이를 씹는 맛이 좋습니다. 다만, 우렁이 특유의 이물 씹히는 느낌이 거슬린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맘'은 다양한 해물과 함께 '느억 맘'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특유의 액젓을 넣어 먹는 쌀국수로, 느억맘의 맛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맑은 국물을 선호하시는 분께는 베트남 중부지역인 hue(후에)를 중심으로 발전된 쌀국수인 '분-보'를 권합니다.



세아제강 군산강관공장 품질경영팀

##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선입견을 버리고 해결책을 얻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마음을 다잡은 후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린 경험,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생각의 방향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API 인증 심사까지 촉박한 시간 대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한 결과,  
품질경영팀은 개정된 API 심사기준에 맞춰 품질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었다.



### 내수시장을 넘어야 한다

세아제강 군산강관공장에서 품질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품질 인증을 비롯해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품질경영팀. 이 팀은 양원배 팀장을 필두로 하여 후배들을 훌륭하게 이끄는 박진배 차장,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최용희 대리, 현장 친화적이며 서글서글한 김양우 기사, 일과 '연애 사업'에 두루 능한 이석희 기사, 강인한 인상을 가진 분위기 메이커 이금송 사원, 올곧은 선비를 닮은 성실 덩어리 유한열 사원 등 7명이 한솥밥을 먹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올해는 API로 시작해서 API로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2014년 API 인증 획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2009년 안산에 있던 공장을 확장 이전해 내수 중심의 공장으로 세워진 군산강관공장은 현재로서는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성장에 한계가 와 있었다. 이에 이들은 수출을 통한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초 본격적으로 API 인증 준비에 착수했다.

###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연내 API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가 세워졌지만, 양 팀장은 연초만 하더라도 연내 획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기가 10월 말 확보될 것으로 보여 인증 심사 및 승인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선입견이었죠." 양원배 팀장은 이 시기를 이렇게 돌이켰다. 어려움에 정면 돌파를 한다는 정신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한 결과,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속속 확보되어갔다. 품질경영팀 7명 식구들은 저마다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형무진 발로 뛰었다. 특히 API Q1(9<sup>th</sup> Edition)이 2014년 6월 새로 발효되면서, 이들은 세아에서 처음으로 개정된 심사 기준에 맞춰 심사를 준비해야 했다. 품질경영팀은 세아제강 포항공장 품질경영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새로운 매뉴얼을 구축하며, API Q1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우리의 품질 매뉴얼로 만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1월 API 인증 획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시간은 우리 편이다

API 인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군산강관공장은 강관 제품에 API 모노그램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미주 지역에서 매출을 추가 확보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다지게 된 것이다. 또한 다함께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한 값진 경험은, 품질경영팀 한 명 한 명에게 큰 보람으로 남은 것은 물론, 개개인의 능력과 자신감 향상이라는 무형자산도 안겨주었다.







“올해 숙원사업이었던 API 인증을 무사히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큰 학습이 됐지요. 많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다른 인증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 팀장은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시간은 늘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인증 획득의 소감을 전했다. 군산강관공장은 2015년 1월부터 API 강관제품의 시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제품의 양산체제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월 3,000톤의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인 순간의 힘은 평소 습관에서 나온다

군산강관공장이 API 강관제품의 양산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제 품질경영팀의 화두 역시 ‘API 강관제품 양산체제에서의 제품 품질안정화’로 옮겨가 있다. “어찌 보면 인증 획득은 사전 준비일 뿐이죠. 이제 API 강관 양산체제 연착륙을 위한 품질 관리가 가장 큰 관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API 강관제품은 수요처가 대부분 미국이고, 품질 문제 발생 시 위험요소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시스템 보안을 통해 점점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증제도인 ISO 14000, ISO 18000 인증도 획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 팀장에게 직원들을 향한 당부의 한 마디를 청했다. “골인 지점을 앞두고 한 발 더 내딛는 마지막 힘의 탄력은, 평소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힘이라고 봅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나는 무엇을 바칠지, 무엇을 버릴지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에 올해 25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API 인증을 획득하면서,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는 것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올해 일을 떠나 직원들과 추억할 만한 이벤트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 이맘 때는 서로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보려 합니다.

- 양원배 부장(팀장)



이만큼 성장했구나!

올해는 제가 세아제강 가족들과 함께하게 된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모든 동료, 선배님들의 따뜻한 온정 덕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어려움이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API 인증 획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최용희 대리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들

2014년은 제게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에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 드리면서 세아제강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감사의 마음 깊이 간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집센 후배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응원해주는 금송선배, 2015년도 함께 웃으며 뛰어보아요. 세아제강 파이팅, 품질경영팀 식구들 사랑합니다.

- 유한열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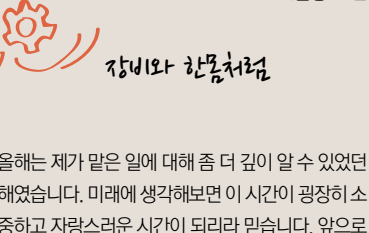
이제 나도 품질남!

먼저 결혼을 축하해주신 세아 식구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멀리까지 와 준 아내, 항상 힘이 되어주는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2014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15년은 저도, 가족도, 세아 식구들도 모두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우 기사

최신 시험설비를 설치하면서 인증 업무나 입회 검사 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이 장비들을 내 몸과 같이 자유자재로 다루서, 최고의 시험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산강관공장 시험실이 우리공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송 사원



올해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미래에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제품 스펙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빵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매일 맛있는 빵을 한 트럭씩 주고 싶네요.

- 이석휘 기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만나다

2014년은 입사 15년이 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근속기념 포상으로 금메달도 받아 아내에게 무진장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고요. API 인증 취득은 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람을 주었습니다. 공장 관리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깊이 깨달았습니다. 2015년은 API 제품의 품질 안정화, 협력사 검사 시스템 및 시험실 운영 개선에 집중하려 합니다.

- 박진배 차장



근속기념 금메달





장제태 대리

다재다능한  
'5툴 플레이어'

고주선 현장팀장

유머와 노련미가 빛나는  
'영원한 리베로'

김영철 과장

판단력과 신중함을  
겸비한 생산팀의 '타이거 우즈'

김용길 팀장

카리스마와 관록으로  
팀을 이끄는  
삼국지 '관우'형 팀장

윤서원 사원

상상의 현실화  
'엘론 머스크'를  
꿈꾸는  
생산팀 막내

채기영 과장

사막의 여우 '룸멜 장군'이  
떠오르는 판단력의 소유자

진운식 현장팀장

'황희 정승'과 같은  
부드러운 성품과 세심함

## 세아 FS 광주공장 생산팀

# 오늘의 자기대면이 내일의 지속성장이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자세를 갖는 것만큼 불편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있을까. 그러나 이를 통해 지혜를 얻고, 자기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조직만이 새로운 기회를 거머쥌 수 있다. 광주 공장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자기대면의 시간을 엿보고 왔다.

## 냉철한 자기대면의 시간

세아 FS 광주공장 생산팀은 자동차 브레이크 및 연료관에 쓰이는 이중권강관, 일중권강관 및 자동차용 전기아연도금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김용길 팀장을 중심으로 5명의 팀원, 2명의 현장 팀장이 한 배를 타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한국번디에서 세아 FS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출발을 다짐한 이들은 그동안 냉정하고도 철저한 자기대면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편하게 일 해온 시간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죠. 그 시간을 보완해야 하는 만큼, 지금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김용길 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2,3년 전에 성장 한계도 왔고 2014년에 사명도 바뀌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위기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일이라는 것, 회사가 상투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가 절감만이 살 길이다

중국 경쟁사들의 품질이 우리와 엇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의 생산성과 가동률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제조원가 절감이었다. 생산팀은 이러한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제조일류화' 활동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파트별 공정을 찾아가 "생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폐기 분량마저 줄여보자."며 Q-COST 절감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또한 제품끼리 보호 패드 없이 겹쳐서 보관하던 중, 혈검게 묶어서 운송하던 중, 파이프 끝단에 남아있던 쇠가루를 방치하던 중 발생하던 스크래치를 최소화해 불량률을 줄여나갔다. 이 밖에도 제품의 승하차 과정 등 고객에게 제품이 최종 인도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생산팀에서 보다 세심하게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생산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후공정 과정에도 생산팀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생산에서 끝나면 다른 부서 업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후공정에도 가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014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환경부장관상표창 쾌거

또한 생산팀은 도금폐수의 위탁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탈수시키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압멤브레인 필터 프레스 설비를 들였고, 탈수를 위한 최적의 약품 반응조건을 찾기 위해 약품 회사의



실험실로 우리의 폐수오니를 들고 찾아가 실험을 하며 고군분투했다. 10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생산팀은 2013년 폐수처리오니 발생량을 개선 전 대비 48% 절감, 즉 326톤을 절감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폐유의 유·수분 분류 장치를 설치해 폐유 발생량을 50% 줄였으며, 희석수의 재활용으로 폐수처리오니 발생량을 6% 절감했다. 세아 FS 광주공장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9월 '2014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에서 환경부장관 상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비슷한 공정을 가진 회사들이 폐기물 관리 기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지난 9월 표창을 받은 이래 12월 현재까지 OB맥주, 매일유업 등 다섯 개 기업에서 찾아와 광주공장의 사례를 배워갔다고.

변화를 습관으로... 가시적 효과 나타날 것

생산팀은 이밖에도 수율 1%, 설비 고장 시간 1시간 등 구체적인 단위마다 돈으로 환산지표를 만드는 등 보다 효과적인 Q-COST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과 관련된 양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T/F 팀을 구성하는 등 유독물 취급 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생산팀의 전 방위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 광주공장의 불량률은 2014년 3/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두고 있다. "2014년도에는 (변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습관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2015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으로 일하면 안 돼, 지표로 증명하라”

세아 FS 광주공장  
김용길 팀장



경영 목표와 철학을 들려주십시오.

팀원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또한 저는 가급적이면 후배 직원들에게 회사에만 있지 말고 다른 회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필요하면 학교도 등록하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소주 공장에서 4년간 있었고, 돌아와서는 창원공장 총괄팀장을 하면서 필드에서 고객을 마주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팀원들이 아직 '필드의 무서운 맛'을 잘 모릅니다. 팀원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준입니다. 표준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표준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래 일 해온 작업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감(感)은 필요 없다. 감으로 생산하지 말고, 숫자로 이야기하라"고요. 생산은 데이터입니다. 표준에 속한 모든 것을 숫자화하고, 계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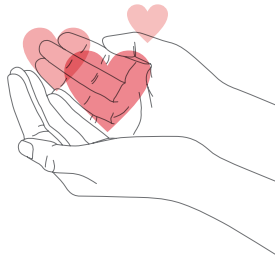
생산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지요?

국내 시장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가려면 품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해외 경쟁사들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 생산 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COST를 줄이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위마저 녹이는 따뜻한 나눔

## 세아 ESAB 봉사동호회 〈세아드림〉



지난 12월 18일, 수은주가 영하를 가리키는 추위를 무릅쓰고 창원 세아 ESAB 임직원이 사랑의 헌혈에 참여하기 팔을 걷어 부쳤다. 이날의 헌혈 봉사는 사내 봉사동호회인 〈세아드림〉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추위마저 녹이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세아가족이 다녀왔다.



### 업무 시간 틈을 내어 차례차례 헌혈버스로

하얗게 입김이 피어 오르고 발은 동동거리게 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헌혈할 차례를 기다리는 세아드림 회원들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동호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보고자 이번 사랑의 헌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세아드림 총무인 재경팀의 장유일 사원이 취지를 전했다. 수혈용 혈액 수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자의 감소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웠던 터였다. 이들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업무시간 틈틈이 짬을 내어 세아 ESAB 임직원들이 속속 헌혈버스로 찾아와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함께했다.

### 헌혈은 아름다운 나눔이자 건강함의 확인

헌혈 차에 오르면 먼저 ‘문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름, 나이, 체중, 신장 등 개인 기본 정보를 적고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한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과 채혈검사를 거친다. 손가락 끝에 따끔, 질병에 대한 양성, 음성 판정 및 헌혈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여부가 가려진다. 혈압이 높거나 낮아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도, 전날 음주를 했어도, 24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했어도 헌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헌혈은 아름다운 나눔인 동시에 ‘헌혈할 수 있을만큼 건강하다’ 증명이기도 하다. 건강한 혈액을 위해 화식이 많은 연말, 음주를 자제한 이들도 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에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초의 찡그림

품질경영실의 하희석 실장은 “도시에서 살면 헌혈할 기회가 많지만 창원에서는 뜻이 있어도 시내까지 나서지 않으면 마땅히 기회가 없죠. 세아드림이 마련해 준 ‘헌혈의 기회’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라며 제일 먼저 헌혈 버스에 올랐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순간은 아무래도 긴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픔은 잠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은 정말 딱 1초면 지나가고 5~10분이면 헌혈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헌혈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초의 찡그림이라고 하는가 보다. 품질개선팀 강봉규 대리에게 헌혈 봉사의 소감을 묻자 “가만히 누워서 피만 조금 뽑았을 뿐인데, 봉사라고 하기에 부끄럽습니다.”라는 겸손하고 고운 대답이 돌아온다. ‘신체의 일부를 나누는 것에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무색해진다. 이날 모아진 헌혈증서는 입원 중인 사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래 함께 근무한 동료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어쩐지 더 뿌듯하다. 헌혈을 마친 후 먹는 초코파이도 어쩐지 더 꿀맛이다.

### 경제가 얼어붙을수록 마음의 온도를 높일 것

동호회 이름에 ‘꿈(Dream)’과 ‘드리다’라는 의미를 담은 세아드림은 2010년 7월에 창단되었다. 관리부문 직원에서부터 현장에 계신 생산팀원까지 봉사 활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현재 회원수는 총 53명이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헌혈만이 아니다. 목욕 봉사활동, 시내 환경정화, 연탄배달, 성금모금 그리고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 ‘경제가 얼어붙을수록 마음은 더 따뜻해야 한다.’는 것이 세아드







림 회원들의 생각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을 향한 발길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아드림은 “창원 시내 곳곳,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보육원, 양로원을 비롯한 여러 복지시설을 두루 다녔다.

진정한 나눔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봉사”라고 말하는 구매물류팀 박해순 사원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봉사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두 번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도 꾸준히 이어가기는 어렵다. 해외영업팀의 이연실 사원도 1년 전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연탄나눔’에 참여했다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은 봉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져요. 다만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힘을 모아 그 힘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준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봉사를 어렵게만 여겨 선뜻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나눔은 가능하다.”고 세아드림 회원들은 말한다. 말 한마디도 진심으로 건넨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잠시의 위로라도 선사할 수 있다면, 그 모두가 나눔이고 봉사라는 것이다.

참으로 따뜻했던 그 겨울의 기억들

이연실 사원에게는 지금까지의 동호회 활동 중 ‘사랑의 온도계 모금’이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출근하는 자동차에 다가가 성금을 모았다. 차 안에 넣어만 두고 잘 쓰지 않는 동전이 모이고 모여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 추운 겨울 주차장에서의 긴 기다림이 보람으로 느껴졌다. 재경팀의 장유일 사원은 ‘연탄배달 봉사’의 추억을 꼽는다. “추운 겨울, 산 중턱에 있는 마을에 배달을 갔었는데, 얼굴 크기만한 연탄을 여러 개 들고 다니다 보니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얼어 있는 바닥을 보지 못한 채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는 않았지만 연탄이 얼굴과 부딪히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었죠. 하지만 덕분에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의 이야기는 고생담이 아닌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담이다.

베풀수록 되돌려 받는 기쁨과 배움

“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자신도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구매물류팀의 최두용 사원은 말한다. 장유일 사원도 “남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 나 스스로도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란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 작은 음악회나 댄스 공연, 연극 등의 무대를 만들어 지적장애아들에게 선보인 적도 있다.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후 “좋은 일이니 멈추지 말고 이어가라.”는 회사의 응원도 받았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카리나 공연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가르쳐 줄 분’을 섭외해 주기도 했다.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따뜻하고 즐거웠다.

나에게서 우리, 그리고 세상으로

“처음 봉사활동을 할 때는 쑥스럽기만 했는데 점점 보육원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갈 때마다 저에게 기다렸다고 반겨주는 아이들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최두용 사원이 말하는 봉사의 이유. 경영지원팀 이종필 부장 역시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 볼 계획도 있다.”고 말한다. “하나 둘씩 나눔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나에서 우리로, 또 사회 전체로 따뜻한 마음이 뿌려질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세아드림 회원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내년부터는 월 1회를 목표로 계획을 잘 세워서 더 따뜻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또는 직장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세아드림 회원들처럼 주위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흔한 말이지만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그릴수록 이 겨울이 조금은 더 따뜻해질 테니. 그 시작이 헌혈이 되어도 좋을 것이다.





## 소이 캔들(Soy Candle) 만들기

# 촛불 아래 깊어가는 성찰의 시간

세아베스틸 기획팀 윤나건 사원 & 세아 M&S 재경팀 김재림 사원

해가 바뀌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 앞으로 그러한 성찰의 자리에 촛불 하나 올려두면 어떨까. 일상적의 공간을 근사한 성찰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캔들 만들기, 생각보다 꽤 간단하다.

### 스트레스는 녹고 생각은 타오른다

조용히 타오르는 불빛은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어 기분전환과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기능적으로는 냄새 제거 효과까지 있어 두루 쓰임새도 많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캔들 시장이 부쩍 커지면서 개인의 취향이 담긴 향기와 디자인으로 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었다. 특히 100% 콩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만드는 소이(Soy) 캔들은 파라핀 왁스 캔들에 비해 나쁜 냄새나 연기가 확연히 적고 재료값도 저렴해 인기가 높다. 촛불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가를 발휘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윤나건 사원과 김재림 사원이 서울 갈현동의 한 캔들 공방에 들어섰다.

“음~ 향기가 참 좋네요.” 두 사람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다. 특히 윤나건 사원은 “제가 원래 향을 좋아해요.”라며 강사에게 이런저런 질문 공세에 나섰다. 오늘 두 사람은 향료를 넣고 드라이플라워를 얹어 장식하는 드라이플라워 캔들, 그리고 예쁜 색감이 매력적인 원뿔 캔들을 만들어보기로 한다.

### 내 취향대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기쁨

먼저 드라이플라워 캔들부터 만들어보자. 고체 상태의 소이 왁스를 녹여 액체로 만든 다음,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향료를 고른다. 여러 가지 향기를 꼼꼼하게 맡아본 후, 윤나건 사원은 달콤한 과일향이 나는 블리스 향을, 김재림 사원은 산뜻한 장미향이 나는 베이 향을 골랐다. 그 다음 용기 안에 소이왁스와 향료를 차례로 넣어준 뒤 고루 섞어주고, 캔들 중앙 부분에 심지를 넣고 잠시 기다리면 소이 왁스가 서서히 고체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윗부분에 드라이플라워를 올리고 드라이어를 켜주면 딱딱, 나만의 캔들 완성이다. 만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일단 기본적인 재료만 갖추고 있으면 캔들 만들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다음으로는 염료를 칼로 잘게 깎아 준비하고 팜 왁스를 부어 완성하는 원뿔 캔들을 만들어보았다. 캔들 전용 펜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사슴 문양을 내주고, 캔들 위를 돌아가며 흰색 펜으로 콧코 찍어 눈 내리는 모습을 연출해주니,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캔들이 완성됐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나만의 취향과 개성이 담긴 캔들 하나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연말연초 포근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가만히 불을 밝히는 촛불이 근사한 풍경이 돼줄 것이다.



### 자기소개와 체험 소감을 들려주세요.

**김재림** ● 저는 세아 M&S 재경팀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캔들보다는 향수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만들어보니까 재미있네요. 캔들마다 모양도 다양해서 신기했어요.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윤나건** ● 저는 세아베스틸 기획팀에서 실적 정리, 판매 분석, 기업 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어요. 촬영한다고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서 웃게 되더라고요. 만드는 동안에도 계속 향기가 나니까 기분 좋았죠. 나만의 것이고 내가 쓸 것이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예쁜 초를 만들고 싶었어요. 노력하고 집중했던 과정도 뜻깊었습니다.





만드는 동안 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김재림**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샘솟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캔들을 만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초들이 대개 한 가지 색인데, 라떼 아트처럼 회오리 느낌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윤나건** ● 촛불은 자기 스스로를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향기와 불빛도 주고요. 제가 살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했어요. 촛불은 꺼져도 사람에게에는 무한히 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제 자신을) 태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평소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편인가요?

**김재림** ● 저는 운동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다가 곧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웃음)

**윤나건** ● 저는 출퇴근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힘차게 살자.'하고 생각하는 식이죠. 집에서는 양초를 켜서 기분 전환을 하고, 삼겹살 파티 한 다음 냄새 제거에도 써요.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가족 간에도 좋은 말이 오가더라고요.

2014년에는 어떤 점이 보람 있었고, 아쉬웠나요?

**김재림** ● 올해 외환 차익 관련 교육을 받았어요. 투자증권에서 외환을 운용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냈죠.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아서 뿌듯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다이어트 등 연초에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후회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운동, 영어 공부를 시작한 점은 발전된 측면이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윤나건** ● 올해부터 분석 업무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팀원들과 많이 친해진 점도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까워진 점이 좋았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재즈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점은 아쉬워요.

2015년 계획을 듣고 싶어요.

**김재림** ● 자금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 보고 배우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요.

**윤나건** ● 업무적으로 가끔 영어를 쓸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회화 공부를 해서 실력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도 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가 밴드에서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회사가 홍대 근처에 있으니 실용음악학원이 많아서 좋죠. 학원을 수강할 생각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초의 향기처럼 모두에게 은은한 행복이 퍼지길...



**소이 캔들, 이렇게 만들어요!**

- ① 고체상태의 소이 왁스를 전자레인지나 핫플레이트에 올려 액체 상태로 만든다.
- ② 캔들 용기에 소이 왁스를 붓는다.
- ③ 향료를 부은 후 고르게 잘 섞이도록 2분간 저어준다.
- ④ 심지를 넣고 잠시 굳을 때까지 기다린다.
- ⑤ 충분히 굳으면 윗부분에 살짝 드라이기를 쏘어주고, 드라이플라워를 올려놓는다.
- ⑥ 다시 드라이기를 쏘어 드라이플라워를 고정시킨다.
- ⑦ 용기에 락 테이프를 붙여 장식한다.



##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연말 식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2015년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이가 있다면, 올 한 해 내 편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영혼까지 든든해지는 식사 한 끼 함께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특별한 연말을 선사해 주는 것은 역시나 맛있는 음식이니까요.



세아제강 인사팀  
이충원 사원이 추천합니다

### 시타라(Sitara)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32  
Tel. 02-325-5623 영업시간 11:30~23:00 월요일 휴무

합정역 5번 출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시타라(Sitara)라는 인도음식점이 있다. 인도음식이라 하면 강한 향을 떠올려 거부감부터 갖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나 역시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점 입구에 들어서자 이국적인 간판부터 눈길을 끈다. 실내 공간이 심플하면서도 은은한 조명을 받아 저녁 데이트 장소에 적합하리란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홀과 주방 사이의 창문을 통해 비치는 요리사의 모습을 본 순간, '아! 이곳은 정통 인도요리 레스토랑이구나!' 라는 신뢰감이 저 생겼다. 인도인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곳이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치킨띠까와 야채카레, 그리고 난을 주문했다. 난은 갈릭과 버터맛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달콤함을 선호하기에 버터난을 주문했다. 과연 맛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 다섯 개 만점에 별 네 개 반을 주고 싶다. 빼 없는 속살에 매콤한 양념이 깊이 배인 맛이 일품이었던 치킨띠까는 속살이 퍽퍽하지 않게 잘게 썬 양념과 함께 하니 그 맛이 과연 일품이었다. 살짝 느껴질 수 있는 매운맛을 양파의 단맛이 잘 잡아준 것도 좋았다. 또한 평범한 듯 하지만 난과 함께 찍어먹을 때 조화로운 맛을 내는 야채카레가 있어 훌륭한 만찬이 완성되었다. 3천원이면 난도 리필이 된다. 이렇게 성대한 식사를 마치고 입안에 약간의 느끼함이 맴돈다면 라씨를 추천한다. 라씨는 인도 고유의 요구르트로 달콤하면서도 씹새름한 맛이 매력이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평일 점심엔 런치메뉴가 9,500원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의 한끼 식사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 생각하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그 곳, 시타라(Sitara)를 적극 추천한다.



## Let's go 오페라 - Christmas Special 세아의 따뜻한 연말 이야기



오페라 음악회부터 록 밴드 공연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의 향연 속에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 브라보, 브라비! 오페라 공연이 흐르는 세아타워

〈Let's go 오페라 - Christmas Special〉이 지난 12월 22일 세아타워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Let's go 오페라〉강연은 크리스마스 주간이자 2014년을 마무리하며 열린 만큼 스페셜 공연으로 화려하게 준비됐으며, 세아인들이 배우자 및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 오페라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무대는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김범진 등 6명의 성악가를 비롯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클래식 연주자들이 오페라의 선율로 공연장을 풍성하게 채웠다. 무대에 선 이들은 혼신을 다한 열창과 연주로 좌중을 압도했고, 관객들은 “브라보!”, “브라비!”를 연달아 외치며 뜨겁게 환호했다. 특별히 마지막 연주는 박익숙 회장이 직접 무대 위에 올라 바이올린을 협연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연주가 끝난 뒤 박 회장은 감회가 깊은 표정으로 “〈Let's go 오페라〉를 시작한 지 2년이 됐다. 그동안 오페라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연말에 이렇게 직접 여러분께 공연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참 행복하다. 으리으리한 음악회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오늘 이 음악회가 생애 가장 큰 음악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페라 음악회에 이어 4층 세아카페에서 또한 번의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세아 카페는 세아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완전히 변해있었다. 세아카페 내부는 물론이고 야외 테라스까지 전 공간에 테이블이 마련됐고, 간단한 핑거푸드부터 먹음직스러운 만찬이 앞에 놓였다. 또한 세아 FS 〈튜버스〉, 세아베스틸 〈더 스미스〉, 세아제강 〈더 스틸〉 등 사내 록 밴드 동호회들이 차례로 나와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주실력을 선보였다. 연말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음악 공연이 있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서로가 있고, 희망찬 2015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 그룹뉴스



## 세아가족,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세아가족〉이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홍보물 부문 우수홍보물대상(한국사보협회최장상)을 수상했다. 〈세아가족〉은 국내 계열사 및 해외 법인에 배포되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1976년에 창간되었으며 임직원 가정과 고객사, 협력사, 관공서에도 배포되고 있다. 이날 세아를 대표하여 수상한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보를 통해 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 〈30일간의 행복한 나눔〉모금 캠페인 실시

세아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세아타워에서 〈30일간의 행복한 나눔〉모금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한 이번 모금 캠페인은 세아타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개인 모금을 위해 진행됐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세아카페에 뽑기 기계를 비치하여 깜짝 모금 이벤트도 열렸다. 이렇게 진행되어 거둔 모금은 총 171만 6,810원으로 23일 모금 전달식 행사를 통해 사랑의 열매에 전액 기부됐다.

## 세아제강



## 순천공장 예방마을 봉사활동

11월 29일 토요일 세아제강 순천공장 직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주말 근무자를 제외한 27명의 직원들은 노인 요양시설 '예방마을'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전기 점검 및 김장 마늘 까기, 작업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보일러 유류(등유 200L) 지원, 어르신들과 담소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순천공장 직원들의 예방마을 방문은 이번이 열 번째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 세아특수강



## 포스세아선재(천진)유한공사 준공

세아특수강은 지난 10월 22일에 유을봉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천진시 개발구 고위인사와 포스코 차이나 권석철 사장, 포스코 강범석 상무, 현지에 진출한 고객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세아선재(천진)유한공사의 준공식을 가졌다. 유을봉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포스코 소재와 세아의 뛰어난 기술력을 더해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화북지역 자동차 산업과 부품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아 FS



## 광주공장, 근로시간 개선 기업 우수사례 선정

세아 FS 광주공장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시간 개선 기업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11월 20일 손민태 공장장은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성과 관련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촬영을 진행한 채널A에서는 한달 동안 우수 기업체 사례 캠페인의 일환으로 광주공장 사례를 방영할 예정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민태 공장장은 “노사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실현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 세아 ESAB



## 세아 ESAB, 가족친화기업 인증

세아 ESAB이 12월 1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세아 ESAB은 그 동안 가족초청행사, 가족캠프, 자녀 영어캠프, 가족친화교육 등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세아 ESAB은 가족·여가·개인의 성장에 시간과 관심을 분배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터 조성에 적극 힘을 계획이다.

## 세아홀딩스



## 결혼

봉효진 인사기획파트

김정민 법무파트

## 세아제강



## 입사

강정숙 본사 STS수출팀

박윤경 포항 설비기술팀

임희영 포항 업무지원팀

## 결혼

심다솔 본사 수출2팀

박동욱 부산 STS영업팀

고형석 포항 생산기술팀

강동균 포항 생산기술팀

## 출산

조 현 본사 인사팀

고문종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이호철 본사 생산계획팀

김 옥 포항 생산1팀

권순규 포항 설비기술팀

박명순 군산판재 생산2팀

## 조의

최병환 포항 생산2팀(부친)

송성용 포항 생산1팀(장인)

## 세아베스틸



## 입사

김윤성 수출팀

임경섭 제강팀

이민형 수출팀

## 결혼

김규완 제강팀

김대림 연주팀

최락현 연주팀

김재극 대형압연팀(자녀)

유민수 대형압연팀

최석년 대형압연팀(자녀)

박홍준 서울 영업팀

## 조의

구자복 대형압연팀(장인)

이상은 기술연구소(장인)

최관순 압연설비팀(모친)

김진오 대형압연팀(부친)

## 세아특수강



## 결혼

김민철 영업1팀

나휘연 구매팀

박규현 수출팀

하종진 부산영업소

이현수 포항 설비팀

이동희 포항 품질보증실

한동우 충주2 설비팀

## 출산

김진식 포항 생산팀

## 조의

김현태 대구영업소(부친)

유성원 수주관리팀(조모)

이동진 수출팀(조부)

이재태 포항 생산팀(모친)

## 세아 FS



## 입사

정서현 서울 인사팀

## 결혼

김유영 평택 생산팀(자녀)

## 출산

공용표 평택 생산팀

장성민 평택 생산팀

최재오 광주 생산팀

## 조의

신석호 평택 연구2팀(장인)

김인승 평택 생산팀(장모)

강정근 평택 생산팀(장모)

백광선 광주 생산팀(장모)

김태갑 광주 생산팀(장인)

조천수 광주 생산팀(부친)

## 세아 ESAB



## 입사

이상혁 품질경영팀

## 출산

권오탁 품질경영팀

## 세아메탈



## 입사

이지훈 창원공장 품질경영팀

이재형 창원공장 수출팀

강진열 창원공장 수출팀

## 결혼

심정용 원주공장 생산설비팀

안영기 원주공장 품질경영팀

## 조의

한태규 원주공장 품질경영팀(조모)

## 세아 M&amp;S



## 결혼

최낙동 여수 설비관리팀

## 세아 L&amp;S



## 입사

금창덕 포항 운영팀

하효란 부산물류센터

박현영 군산 운영2팀

손미현 군산 운영2팀

강해주 인천물류센터

## 결혼

서영선 강관영업팀

금창덕 포항 운영팀(자녀)

## 출산

김성욱 영업2팀

강사안 영업2팀

김대성 군산 운영2팀

## 조의

박준민 당진공장(조모)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결혼

박요한나 사무국



Reader's Letters 세아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박봉화

세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특히 <특별한 하루> 코너를 통해 다도에도 오감(五感)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김순기

늘 읽을 거리로 가득한 사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새로운 정보와 소식들이 가득하여 매달 기다려집니다. 두 달에 한 번이라 아쉬워요.

이청아

예쁜 일러스트와 함께 꾸며진 테마 에세이, 잘 보고 있습니다. 매 호마다 동화 한 편씩 만나는 즐거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희영

두 마리의 쇠뿔구리가 힘을 합해 공을 굴리는 표지 이미지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절로 떠오르더군요. 오늘의 큰 세아가 있기까지 협업을 통해 열심히 성과를 일궈온 세아 가족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은경

협업 이야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마침 수확을 하는 계절이기에 보다 더 뜻 깊게 각인된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 고생한 동료들을 격려하며 가슴 따뜻한 덕담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정민

뇌과학과 경영활동을 엮어 풀어낸 <CEO 세미나>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과연 전혀 상관없는 것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고,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uiz

세아가족 11+12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답을 옆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제 01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과 함께 세아제강이 받은 상의 이름은?

- ① 3억불 수출의 탑    ② 4억불 수출의 탑    ③ 5억불 수출의 탑    ④ 6억불 수출의 탑

문제 02

세아의 각 계열사에서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여 2015년 5월까지 실시하는 심층적, 실용적 어학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은?

- ① CBS    ② GLS    ③ SGC    ④ SGL

문제 03

10월 22일 세아특수강과 포스코차이나가 함께 준공한 제2합작법인, '포스세아선재유한공사'가 위치한 지역은?

- ① 천진    ② 난통    ③ 베이징    ④ 상하이

지난 호 퀴즈 정답자

박봉화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이청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유은경 대전시 중구 서문로

한정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3나길

김순기 경북 의성군 안사면 월소길

김희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세아가족> 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 (본사)

이찬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창원특수관공장)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판재공장)

이경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순천)

유원정 세아베스틸 기획팀 (본사)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회계파트 (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충주)

정서현 세아 FS 인사팀 (서울)

박수연 세아 FS 경영관리팀 (평택)

이송이 세아 FS 품질경영팀 (광주)

진승래 세아 ESAB 경영지원팀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건호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김민구 세아 M&S 서울사무소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 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프로 못지 않은 동호회,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chris.ahn@seah.co.kr / 02-6970-0093





## 오늘을 보내고 새로운 내일로

한 계절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연말은 연초로 이어지는 것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그리고 2015년의 시작, 그 앞에 서 있는 지금.

끝과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